賃金二割減反對코 京城塗工總罷業

百二十名結束對抗

펭키請負業組合은要求拒絶

시내펭키도공(塗工)을전부망라한 경성도공조합원(京城塗工組合員)일백이십명은 십팔일부터 총동맹파업(總同盟罷業)을단행하엿다는데 그원인은『펭키』청부업조합(請負業組合)에서 임금최고 이원팔십전과 최하일원륙십전을 작년에 일할식감하엿슴에도 불구하고 지난륙월에와서 또다시 이할식을감하갯다함으로 도공조합에서는 지난십칠일에 시내수표정(水標町) 교육협회(敎育協會)내에서 긴급총회(緊急總會)를개최하고 회의한 고주의요구를 거절하엿든바 십오일에 압금지불시에 무리히 이할식 감한대로 지불 하엿슴으로 이에 반대하고 총동맹파업을 한것이라하며 십팔일밤에는 위원회(委員會)를개최하고 실행위원(實行委員)으로한택홍(韓宅洪)김인학(金仁鶴)등이십인을선정하고 지구전(持久戰)을계속하기로하엿다한다

最後까지不屈 實行委員談

일할감하한 임금중에서 다시또 이할을감하함에 분개하야 총동맹파업을단행한 권리경성도공조합쟁의 실행위원중모씨는 다음과가티말한다

『펭키청부업자조합은 경성부근의 청부업자 약이십여인으로 조직된것인데 전부가일본사람들임니다 처음에우리조합에서 이할감하에 반대한다고 통고하엿더니 너희들이 반대하거나말거나 자긔들은그대로 실행하겟다고 하고서 완강하게 거절함으로우리도 총파업을한것입니다 경성에는 우리조합원외에는『펭키』의기술자라고는업습니다 끗까지싸워볼결심임니다』운운

지안는터이다 그반면에 다대한 공사비와 장래재산의 불합리에 큰두통거리가 되는것이라 하야 이조합은 결국조사가 완성된다할시라도 도저히실현할수는 업슬것이라고 관측된다

昭和水組는 結局은流產

第一案을調查中이나 採算不能으로無望

총독부산미증식(產米增殖)의표면정책에 중요한부분이되어 잇는수리조합(水利組合)설립계획도고리채(高利債)와 채산(採算)이맛지안는관계로 긔정방침의진행에 크나큰 차질(蹉躓)을 생기게하고 마츰내 그정책도근본적계획을 변혁하기에 이르는것이다 긔보한다와가티 금정(今井田)정무총감은 그방침게정의 권제로 동양척식회사(東拓)의중요사업인토지개량부(土地改良部)를 폐합하고 총독부내에잇는 토지개량부도 축소를 성명한바인데 이로서묘케되는 소화수리조합(昭和水組)은 케일안(第一案)을재차조사하야 달나는 일부조합원의 희망에의지하야 총독부에서는조사반(調查班)을파견하야방금실지조사를 진행하는중이나 동수리조합파가는것은 몽리구역(蒙利區域)이원체방대하고계획이크니만큼 한원긔공(還元起工)을 한다하더라고 다대한 국고보조(國庫補助)를 요구할것이다 세입격감과 재정난에 직면하야산미사업 축소를 희망하고잇는 신총독과 정무총감은이소화수리조합의 부활을 희망하

◇ 잔비개인후새맛나는오이 ◇

朝鮮最初 理學博士

京都大學李泰圭氏

文穆圭氏엔醫博授與

경도제국대학(京都帝大)의학부를마치고 동학원에서 연구를거듭한결과『흡입마취(吸入麻醉)하는 며에독기(免)의위관장운동(胃管長運動)에 대하야』라는 론문을제출하엿든바이번에통과하야 십삼일부로박사학위(博士學位)수여의인가가잇섯는데 금일또조선에서 처음으로리태규(李泰圭)씨에게는 리학박사(理學博士)의 학위를수여하기로결정되엇다는 소식이왓다 리태규씨는 충청남도례산(忠南禮山)출생으로 경성제일고보(京城第一高普)를 졸업하고 광도고등사범학교(廣島師範)를맛친후경도 제국대학리과화학교실(京都帝大理科化學敎室)에서삼년간 수학하고동대학소송무(小松茂)

시내수은동(授恩洞)구십번지문목규(文穆圭)씨는일즉이경도제

사진 우는 리태규박사 좌는 문목규박사

朝鮮人地主 歸還者款待

【平壤】 평양의학강습소중국인수용소를폐지하게되어중국인농민사십륙호(四十六戶)일백구십칠명을 긔림리(箕林里)선교리(船橋里)대타령리(大駝嶺里) 평천리(平川里)의 네곳에 합숙(合宿)식히락크를 짓고 십칠일저녁에 수용하엿는데 중국인농부들이십여일만에돌아오게되자 몽지방조선인 지주들는 저녁과 주안을 준비하고 중국인농민들을횡하하여 관대하여합숙소의제일야(第一夜)는평온한가운대서지내엇다한다

朝鮮文庫後援 發起人會를開催

각계유지인사를망라하야 廿日基靑會館에서

로 연구를거듭하든중 론문에대한 엇지결과는 한것이다 씨는 금년삼십사세로조선이나흔최초의리학박사로각

발멋에긔에게자못크다

작보한바와가티『하와이』조선눈지들은 후원회발긔를 준비하든중오는이십일오후네시반부터시내종로중앙긔독교청년회관에서 발긔인회를 개최하기로되엿는바일반은다수참석하야주기를바란다하며 또다음과 가튼출판물들도문고에긔증하기로되엿다한다

◇寄贈書籍

▲朝鮮의現在와將來一部▲許光洙氏 ▲端宗哀史一部 李白南氏▲少年西遊記二部 尹等의背後에서一部▲兒童洗浴傳一部▲汝一部 李益相氏▲東亞日報繼續寄贈 東亞日報社▲朝鮮日報繼續寄贈 朝鮮日報社

全州中人도歸還

【全州】 전주에서는그동안조중인간(朝、中人間)수차의 소송으로 곳 오든터이라한다

國民黨調査委員 實地撮影과調査

周照高氏一行入壤

【平壤】 국민당 조사위원장(國民黨調查委員長) 주조고(周照高)씨외사명은 십팔일오전여섯시십분착 급행렬차로 래양하여『호텔』에서잠간쉬인후 평양부내 각처로순회하면서 피해중국인상점등을 한곳도 빼여놋치안코 촬영조사하엿는데 왕공사(汪公使)의래양보다도 권긔주씨일행의래양이 더욱 주목을끌엇다 한다

四氏無事

종로서에서방면

新幹解消派

작일에 신간회해소파(新幹解消派)를 중심으로한격문사건(檄文事件)학생동맹휴학선동(同盟休學煽動)등의 혐의로 시내종로 경찰서(鍾路署)에검거되엇든 신간회안철수(安喆洙)경성지회(京城支會)의 김관빈(金觀斌)중청(中靑)홍재식(洪在植)등사씨는 십날일오후에 무사히 석방되엇다한다

돌이잇슨후 별다른일업시 지내오든중 지난십륙일 재류중국인십륙명은 돌연일단이되어 오래동안정들엇든전주를등지고본국으로

仁川華商訪問

名界協議委員

위문금륙십원을교부 避難中人을慰問

각계련합협의회에서는인천(仁川)지방에서조중(朝中)량민족의충돌사건과 피난중국인을 위문하기위하야 리인(李仁)김권제(金權濟)원익상(元翊常)삼씨가십칠일오후두시반경성역발렬차로인천화상총회(仁川華商總會)를 방문하고 동회장권유공(傳惟貢)씨를회견하야금번사건에 대한유감의뜻을표하고 위문금륙십원을전달한후귀경하엿다 한다

은삼백여명은대화정(大和町)홍승두(洪承斗)신창리(新倉里)동합성(聚合盛)죽전리(竹典里)경성공(和盛公)동내중국인상점에 수용하기로되엿다 이리하여 익시에 수라장화하엿든 평양은 날의상태를 회복한후 정답게손을잡고거래를하게되엇다한다

浦項被檢者釋放

【浦項】 경북포항경찰서(北浦項署)에서는지난십이시경에 본보 포항지국긔자리계백 서명출(李濟伯、徐命出)량군을 검속하야 류치중이다가 지난십사일오후오시에석방하엿다는데 그내용은 만보산(萬寶山)사건에민중을선동하엿다는 사실무근한구실로그와가티검속한것이라한다

三淸洞附近에 大山林公園實現

국유림야십만정보대부하야 總督府山林部도諒解

경성부(京城府)에서는 재창하는 서울에대산림공원(大山林公園)을설치하고저 대정십오년 이래계획을 진행하든중인데 그유력한후보지(候補地)로시내삼청동(三淸洞)부근에 잇는 국유림야(國有林野)십만평을 대부(貸付)에 대하야 총독부산림부(山林部)와 교섭을 진행하든중 최근에이르러 그대부에대한 총독부측의 량해도잇섯다그리하야 경성부로서는 명년도부터 이것을 실현식히는동시에산책도로(散策道路)와지완청하야 사십만부만에게 개방케할모양이다 그공원은 장차예산이 허락되는대로 수만원의경비를던저 아동 유희장기타각종운동장까지 모든설비를할 모양이라한다

軍隊赤化任務와 組織論講釋

傍聽學生等은筆記 日本共黨公判續報

【東京電】 일본공산당(日本共產黨) 재류회공판은십날일오전십시부터 개정되엇는데 당일에는 특별히학생방청객으로 법정이 대만원이엇섯다는데 방청자의대부분은 피고의공술을『노―트』에 일일히필긔하엿스며 해당과(解黨派)의

避難中三百名 四箇所에合宿

피난민의수용소는페쇄 平壤中國人等其後

【平壤】 의학강습소안에수용되여잇는 중국피난민은 십팔일까지에 이백명은 취직하엿고삼십명은 자긔천포로 돌아갓스며 고비리(高飛里)한광에십이명승호리(勝湖里)『세멘트』공장에여섯명이 각기돌아가 결국이백사십팔명이 피난소를 떠나게되여 십팔일정오 현재가 오백오명이든바 그중에서 이백칠십이명이 귀국하여 현재남은사람은 삼백이삽십명밧게업슴으로예정대로 이십일에는피난소를폐쇄한후남

汪公使一行

【平壤】 십칠일평양에 주왕공사는 동일오후자동차로피해현장을 조사하엿는데 당일밤한후십구일오전열발렬차로 래양하엿다가 오후에는 다시당원 자격과 입당수속(入黨手續)

負傷者와遺族에 平南道서慰問金

【平壤】 평안남도에서는십팔일 의학강습소에 수용중인중국피난민중 사망사유족과 부상자에게위문금을수교하엿다한다

▲負傷者二十五名 五十圓式

▲死亡者遺族四名 五百圓式

天津在住同胞等 慰問金募集活動

要路關係者도歷訪

【天津支局發】 남만주만보산(南滿洲萬寶山)사건이도화선이되여 조선전도에 불상사가발생되엇슴에대하야 재진동포(在津同胞)유지의발긔로지난칠일에 중한규분해결긔성회(中韓糾紛問題解決期成會)를조직한후로는 동회원김정필(金禎弼)씨등수인은 천진에잇는 중국인각관공서와 각신문사를 방문하고 간담을교환하얏스며 지난십삼일부터 조선내조난중국인(遭難中國人)을위하야천진북평을다니면서동정금을엇기에활동중이다

李應瑞等三名 結審코死刑求刑

◇최봉조한사람만일년에 革命軍事件公判續報

【新義州】 십유여년만주에서 조선××군사령관(朝鮮××軍司令官)으로널리일홈을날리든 평북강계군(江界郡)출생의리응서(李應瑞)(三)급그부하 김여련(金汝璉)(三)손용준(孫用俊)(三)최봉조(崔奉祚)(三)등사명에관한치안유지법위반(治維法違反)살인(殺人)방화(放火)등 죄명에관한케삼회공판은칠월십칠일오전십일시 신의주 지방법원(新義州地方法院)형사법정에서 (渡邊)재판장 주심문

(文)조천(早川)량배석판사 본(橋本)검사흑도(黑島)변호사 립회로개정되엇다 작일회부터 리응서(李應瑞)는 자긔범행을 극력부인하고 즉결행동은일체로 업다고주장변명하엿스나립회한교본(橋本)검사로 부터 장시간의 추궁을 당하고가잇슨후 李應瑞 金汝璉 孫用俊 삼명에 대하야 사형(死刑) 최봉조(崔奉祚)에 게징역일년의 구형이 잇섯다 이구형

이떠러지자 자긔범행을 철두철미부인하야 오던리응서는 놀나운표정으로 일어나 재판장을부르든후 자긔는 즉결행동을한일이업고 무죄함에도불구하고 사형을 구형함으로 너머심하니재판장은 잘양해하여 달나고애원하엿다 다음흑도(黑島)변호사로부터 각피고에 대한변론이잇슷고 동십이시사십분에 결심하엿다판결언도일은 아직 결정치안핫다

鷄飼養一方 土疾을豫防

닭을리용하야도질을예방 實施코저調査進行

총독부경무국위생과에서는조선의풍토병인지스도마(土疾)병퇴치에 대하야 새로운방법을연구하고 방금조사하는중이다 이토실병이 사람의몸에 침식하기까지의경로는게(蟹)먹는 가닭인테게는소라 (螺)로부터균을가커오는것임으로원산지에소다의독을박멸한다면자연『지스토마』의병균는박멸되는것이다그러하야 위생당국에서는 소라속에잇는긔생충을소라속에만히긔생식히어그독균(毒菌)을번식하지못하게하고저하는데그방법는소다에게잇는독균을닭(鷄)이나가축(家畜)에게 먹여이균을 만히번식식힌 배설물을소라가 잇는물근처에 색리어 그중간매개물이소라를 박멸케하는것이며 전긔균을 먹이는닭이나 가축는여떠한일정한긔한이지나면식용에 무방함으로일거량득의묘안(妙案)임으로이것은 전조선적으로실시 하고자목하조사중에 잇다

慶雲會總會 경성여자공립고등보통학교(京城女高)졸업생 한다

共黨嫌疑朝鮮人 四十二名을押送

봉천이송은처음일이라주목 奉天第一監獄에收容

【奉天】 지난십사일오전열시심해참(瀋海站)도착심해선객차에는 사십이명의 조선사람을다수 중국경관의엄중한경계리에 호송하야 하차즉시로두대의감옥용자동차로어대인지압송하엿는데 의하면 그들은중동선(中東線)모처에서공산당혐의자로중국관헌에게체포되아힐빈(哈爾濱)경유결림감옥에서일박(一泊)한후즉시봉천으로압송한것이라는데길림방면에서체포한 죄수를봉천으로이송(移送)하는것은종래업든사실로금번사실은일반의주목의초점(焦點)이되는것으로시절이시절인만큼그들의조선사람의어떤새로운방침이나아닌가주목된다그러고사십이명은목하대서변문리(大西邊門里)심양제일감옥에수용중인바그중에는녀자도한명이잇다한다

警察部長이 釋明

룡산서원폭행

십오일밤 한강에서 경계중이든 룡산경찰서원이 대판매일신문긔자 도변(大每記者渡邊)에게 돌을던지며 폭언을 하엿다는사건에대하야 삼팔일정오경 경긔도상내(上內)경찰부장은 암에와가티 긔자에게 발표한바잇섯다 도변긔자가『보―트』를타고사진을 백이려할때에 경비선에서순사가 배를타고강가로나오지말라고 다소심한 말도하야서로 언론이되는새에 경관이속히나가라고하야 그때도변군이 물에떠러지는등의 일은잇섯다고 인정하나 돌을던젓다는일은 아무리 조사하여

假刑事強盜

【會寧】 함북회령(咸北會寧)은국경지대이니만큼더욱히요사이에는 시국을표방히고 별별일하나는데 신륙일회령과 서이러나는 어떤수상한 사람이존사이길에 어떤 사람의 몸을나타나서 자긔는 회령경찰서에근무하는 형사인데 몸을수색할필요가 잇다하야 가는행인의몸을수색한결과 돈가방이 잇슴으로그냥그것을 가지고 자취를감추엇다는 보도를접한 당지경찰서에서는 비상소집을하야 체포에노력한결과 회령역에서 체포되엿는데 가진금품을 조사하니 일원륙십전이라한다

夏期書道講習

【永同】 본보충북영동지국(永同支局)에서는 이번하긔(夏期)를리용하야 서도강습회(書道講習會)를개최하기로한바 일반긔에 서도(書道)가 쇠미(衰微)해가는 오날에잇서 그추장(推獎)하는의미에서긔분적보익(補益)이라도될가하는것이 그주최의 의의(意義)라는데 강습긔간(講習期間)는 오는 십삼일부터 일개월동안이며 오전반(午前班)은 소년 학생들을 갈으치고 오후반은일반인사들이 강습하리라 하며강사는사계의 권문가이권귀현(權龜鉉)박희석(朴喜錫)량씨 인바 벌서부터 일반은만흔 긔대를가지고 속속신청하는중 대성황을 예긔하리라한다

미쓰朝鮮

조선녀자열명중에서 大每社에서募集

대판매일신문사(大阪每日新聞社)에서는『미쓰조선』이라하야 조선에사는미혼녀자로 가장잘생긴사람 두명을 일본인측한명 조선인측한명식 뽑으리라 한다 후보자격은 기생이나 배우음식점작부가아닌 미혼녀자로 널리후보자 사진을모집하야 그중에서 일본인측십명 조선인측열명식선발하야가지고 그것을 다시십사일에 채점을하야 명식선발하고 각히상품을 주리라한다 모집긔한은 팔월십일까지고 모집장소는 경성남대문통 대판매일신문사경성지국이다

도 인정할수업다 그간에경관이도변군이 신문긔자로 직무상활동을 하엿든것을 알엇든면증나더면외라도보아주엇든 것은유감이다 또이도교부근에서교통정리하든경곡(鍾谷)순사가자동차운전수를구타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수가말을 안들어서그리햇다고하며경비본선에 서장이준 맥주두타쓰를잇고 먹은것도사실이나 밤도느젓섯고 날도치워 조금먹엇다하니 그것도정도문제인줄 안다운운

箕子抹殺論 ―의再吟味―

北京에서 子木

朝鮮日報三六〇二號社說箕子抹殺論은 大體에잇서正鵠을어덧다 나는그에對한一部의補遺即箕子受封史實의本源인 史遷의乃封箕子於朝鮮이란自體에對하여再吟味를하여볼가한다

周人은外來民族이엿다 當時西北支那甘肅地方에서移住한西夷이엿다 (古公亶父陶復陶穴未有家室……率西水滸……聿來胥宇『詩經』 文王……西夷之人也『孟子』)이新興한外來民族의勢力이唐虞以來東北支那에서進展한傳統的政權을 簒奪함이그리容易한일이아니엿다 오로지當時群小封建勢力의大聯盟(嗟我友邦―泰誓, 不期而會者八百―史記)的反亂에서 形式的主權交替를하엿슬뿐이요 그革命直後諸封建勢力인 一千八百餘의 小邦亂立을 因循容認하지아니할수업섯든것이엿다(水野梅曉著大支那大系參照) 그리고 革命의元勳呂尙의封國인 今山東省에서도『就國』拒絕의 叛亂이잇섯다―史記齊世家―周人의東都……

性을부친것은 周人의用意周到를말함

元來支那史家의通弊는 主觀的見地에서事實을歪曲 그리고忌憚업는杜撰을함에잇다 陳壽의三國志에서 魏收의魏史에서楮遂良長孫無忌의武德政變史에서 그時甚한例를보인것은 支那史家自身이公認하는바이다 이杜撰의風은孔子以前부터 流行하든것이엿다 只猶及見史之有闕文……今無之矣―論語―라는嘆語는當時 史家가盛히杜撰으로서闕文을 補充식힌左證이아니면아니된다 그러코보면오즉史遷만이엿지 이例症에걸리지아니하엿스리요 아니다史遷이더욱甚하엿든것갓다 史遷이죽은지三百年이못되여 同一王朝의關官인 王允이이를指摘하엿다―武帝에게宮刑當한私憾으로武帝의 不利益한記事를만히하엿다고 ……

上海의 밤

金沼葉

밤이다―上海의밤……

로맨스 나의 白파라솔 ―日本鎌倉紀行에서―

崔泰駿

몬부랑의雄姿 (佛瑞國境名山)

日曜페―지

讀者、學生諸氏께開放

一般投稿

一、내가研究하고잇는일(圖解附)
二、故鄉에숨은이야기
三、나의로맨스
四、내가박힌寫眞(藝術寫眞添付도조슴니다)
五、讀後感(世界名著中에서)
나의作曲(自曲이거나原曲이거나 그것을分明히그리고歌詞가잇서야합니다)

學生投稿

隨筆、詩、童謠、漫畫、漫文
콘트、紀行文、其他

注意
一、投稿할때는紙上으로는匿名도조흐나本社가지는本姓名을알리우실일
一、一行十四字로一百二十行以內로取捨는本社에一任할일
一、『내가박힌寫眞』은大小와題材는自由입니다

朝鮮日報社學藝部

學生文藝

이슬

京城 信明中學校 金禮煥

라듸오 七月二十日

三代 (176)

廉想涉 作
安夕影 畫

天安社會團體 中人慰安會禁止

경찰이필요업다고금지 個人으로中人歷訪

【天安】 금번인천, 경성, 평양등지에서 이러난중국인사건에대하야 항상 염려하고 미안하던 천안사회단체에서는 지난 십팔일오후팔시에 천안에서 각단체대표간부와 시민유지 십오인가량이모혀서 중국인거류민대표자수삼인을 청하고 사과와위문을하는동시에 장래두민족사이에 친선할 방책을 강구하려고 준비를다한바 동시간에 천안경찰서에서는 필요치안은 일이라고하여 돌연히 금지명령을 하엿슴으로 부득이 회합은 못하고 각대표자들은 화상총대(華商總代)를방문하고 위문을하엿는데 씨는 매우감격한 표정으로 두민족의 장래친선을 위하야 어대까지든지 로력하겟다고 대답하엿다하며 이번의 발긔단체는 아래와갓다

天安在滿同胞擁護同盟 天安青年會 天安基督青年會 天安勞友會 衡平社天安支部 天安商工協會 天安記友團

金泉檢束者는 全部無事釋放

【金泉】 경북김천(慶北金泉)에서 금번조선인 중국인충돌사건을 전후하여 애매한청소년이 이곳에서 다수검속구류를당하엿다함은 긔보와 갓거니와 지난 십칠일에 최인갑(崔仁甲)은 일주일간구류 박승진(朴聖鎭) 최무호(崔武浩) 전수복(全守福)외사인은 각기십일식구류를당하고 무사석방되엿다한다

百萬長子의 賓子 十二歲少女凌辱

여러달처료의병을주고 五百圓에和解懇請

【順天】 당년십이세의 소녀(少女)로서 백만장자의 아들이며 사십이갓가운장정에게 강간(强姦)을 당하야 모진고통을당하고 병까지 전염되엿스되 다만 이세상에서가장만능을자랑하는 돈이업기때문에 치료도못하고 인생의모든 비분과 원한을홀로한몸에메고잇는것가티 분한에잠겨잇는 애처러운 묘령소녀가 전남순천(全南順天)에방황하고잇다 이반면에는 어린이에게 정의감(正義感)을가지고 동정한다하나 상대방이 백만장자인만큼 아무쪼록 리용해서 자긔의배를 불리기위하야 무수한협잡배가 드나들어 란마(亂麻)와가티 어린이의머리를 더욱산란케한다고한다 그는본적을 담양읍(潭陽邑)에둔 김모(金某)의 귀여운외딸인 김추월(金秋月)(一三)이란소녀로 원래가정이 극도로 곤난하야 각처로유리하여다니다가 작년일후봄 어느날에 김모는 사랑하는딸까지도 고흥(高興)에서 … 기생 하산옥(河山玉)에게 … 그리하야 … 양모인산옥에게 음률가무등을 … 그가나히는 비록 어릴지라도 얼골의 미묘함은 장차피여나려는 부용과가튼 뿐아니라 음악에대한 텬재적기능을가젓슴으로 일반의 사랑을바다오든중 음력으로 지난사월이십일경엔 양모와함께 고흥군동강면 유둔시(高興郡東江面油芚市) 김용운(金容云)의 려관에서 멋출두류하게되엇든바 맛츰이날 양모산옥은 출타하고업든때 동시내에사는 백만장자의둘재아들 서모(徐某)가 차저와서 가즌유혹을다하다가 듯지안흠으로 필경은 우는입을막으며 소리를치면은 죽인다는등 위협을하야 강약이부동으로 할수업시 색마(色魔)는야욕을채우면서 그와가티 병까지잇게되엇다 그리하야 양모산옥은 늣게도라와서 즉시 벌교포제중병원(筏橋浦濟衆病院)에입원하여 삼주일동안이나 치료하야보앗스나 하등효과가업승으로 멋츨전 순천도립의원(順天道立醫院)에서 이개월간 치료하지안흐면안되겟다는 진단(診斷)을밧는동시에 입원코저하나 비용이업서 시내 장흥려관(長興旅館)에드러잇스며 애오라지그의생부(生父)만을찻는중이라는데 그의양모의말에 의하면 순천으로온후 가해자인서모측에서는 일금오백원으로 화해하여달라고 간청하나 추월의실부를 찻기전에는 도저히허락할수업다고 거절하엿다하며 동사건은 일반의화제(話題)가되어잇다한다

酒造者競爭

【金泉】 경북김천(慶北金泉) 지방에서는 얼마전부터 외처의술이 이입되어주조업자에게는 대타격을주는 반면에 일반판매업자및음주계급에는 소극적인지에서 리익을주고 잇던바 최근에와서는 타주일두에 일원이십전까지 하락이되엇다는데 외처로부터 주장만이 이입되는곳은 선산(善山)이라는바 초긔에는김천주조회사에서 방어적태도만 취하여왓스나 타주일두에 이원이십전밧던것을 일원륙십전까지 인하하여도 선산주는 김천주가이하로 인하하는 관계상 결국은김천주를 선산방면에 가지고가서 경쟁적으로 판출시키는 바람에 음주당들에게는 일대 복음이라고한다

出獄親知와의 懇談會도禁止

일반의비난이놉다고한다

【大田】 신간회대전지회(新幹會大田支會) 사건으로일년동안이나 철창에서 신음하다가 무죄로 석방된 리성춘(李成春) 권경득(權庚得) 림석남(林石男)외삼인와의 간담회를 대전시민유지일동이 개최하랴든바 지난구일에 대전경찰서(大田警察署)에서 돌연주최자의대표신철(申哲)씨를 호출하야 절대금지의 명령을나리엇다는바 환영회까지 하지못하게하는 경찰의무리한탄압에 일반은 원성이자자하다한다

檢束者釋放 천안명류들

【天安】 천안경찰서에서는지난번삼성보(三姓堡)사건이래로 경계를 엄중히하든바 지난칠일에 당지사회단체중요간부로서 로서호 홍찬섭 조귀용(盧緒鎬 洪瓚燮 趙貴用) 삼씨와김영엽(金永曄)이란청년까지 사인을검속하엿다가 십오일오전에야 전부석방하엿다한다

申氏記念碑

【盈德】 경북영덕군영덕면소월동(盈德郡盈德面小月洞) 신태진(申泰晨)씨는본시성품이온후하고 인자하야 궁자빈족과일반 …

釜山大和工場 職工十餘名檢擧

사건은비밀에부처

【釜山】 부산경찰서에서는 박제(朴濟)씨외 열한명을 돌연검거하여가지고 방금 엄중한취조를하는중이라는바 사건 내용은비밀에 부침으로알수업스나 드른바에의하면 부내 화천정에잇는 대화고무공장(大和고무工場)에서 직공두명을 정근(停勤)을식혓섯는데 그직공간부 몃사람은 거긔에대한 대책을강구중이든바 경찰은그와가티 검거취조중이라한다

吉城醫生會總會

【吉州】 길주군내의생들로조직된 길성의생회에서는 지난십일일 금천시(錦川市) 김재옥가에서 제칠회정긔총회를 개최하엿는데 전체회원삼십인중 출석회원은 약반수에불과하엿지만 각자가 경험치료한법과 위생급 전렴병예방에 대한연설로 자못성황리에서 아래와가튼결의가 잇슨후 폐회하엿는데 선거된임원은 다음과갓다

決議事項
一、經驗治療法原稿를隨時收集하여印刷回覽케할것
一、傳染病豫防의件
一、藥價統一의件

選擧任員
會長李鍾鳳 副會長金兌說 總務朱昴燁 書記金龍現

▲留學生慰安會開催

【安州】 평남안주(平南安州)에는류학생이 약백명에 달하야 년년이하긔방학이면 각각 귀향하야 각방면으로 활동을 게을리지안코 한다함은 일반독자로서 잘알고잇는 사실이다 그러나동정심이 박약하얏슴인지 물질이 허락지안흠인지 그저간 류학생에게 대하야이러타할만한 위안회를 열어줌이 업섯슴을 유감으로 생각한 당지대성학교장리관순(大聖學校長李寬淳)씨가 거대한 금전을 들여서 안주류학생 위안회를 좌긔시일장소에서 열리라는바 방금준비에 대분망중이라는바 일반류학생들은 이번기회를 일치말고 다수참래하야 웅원한 포부를 말하고 이하로는 문자그대로 취미진진하게 지내기를 바란다한다

一、時日 八月五日午前十一時
一、場所 東面平栗公園

朝鮮勞働者罷業 批判演說禁止

시국이불안하다는리유로 永同警察當局에서

【永同】 충북 영동로동조합(忠北永同勞働組合)주최로 최근조선로동자파업비판연설회(罷業批判演說會)를 개최한다함은 긔보한바이어니와 주최측인 로동조합에서는 그준비의 미진한일이잇서 예정보다 느진 지난십팔일에 동연설회를 개최하랴 하든바 영동경찰(永同警察)에서는 시국이 불안하다는 리유로 동집회를 금지하겟다함으로 여러날을두고 준비해온것도 수포가되고 부득이 동연설회를 중지(中止)하고말앗다한다

順天中國人開店

【順川】 평남순천읍내(平南順川邑內)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금번놀상사로인하야 지난칠일부터 그동안휴업중이든바 십륙일 부터는 각각개점하얏다한다

各地學議員

▲襄陽學評選擧 【襄陽】 양양군의교평의회선거는 지난일일 군하각면소에서 거행되엿는데 당선된씨명은 아래와갓다고한다

縣南面 崔寬集 縣北面 吳炳根 巽陽面 金昌煥 襄陽面 崔興植 西面 金顯奎 降峴面 張慶煥 道川面 柳時永 土城面 [illegible] 竹旺面 朱燉

新延金山紀行(一)

龜城支局 K生

五月二十三日! 朝鮮鑛業界에一生을投身活躍하든 故朴根湜氏의經營하든 朔州郡九曲面新安洞에잇는 新延金山探討의길을떠낫다 午後十時定州에서 自動車에몸을실고 一路朔州邑外지달니게되엿다 定朔線二等道路는 比較的平坦하여 乘車氣分이그럴듯하다 午後四時朔州邑에下車하여 當地本報分局을차젓다

… 分局長과同行하여 金山事務所에到着하니 鑛主朴龍鑋(朴根湜氏長子)氏가 京城出張中임으로 事務員에게來意를말하고 若干의參考材料를어더가지고 事務所에서 指定하여주는旅館에投宿하여 하로의疲勞한 다리를펴게되엿다

翌二十四日! 鑛主朴龍鑋氏가歸鄕하엿슴으로 事務所로訪問하여 新延金山에對한 仔細한來歷을듯게되엿다

本是新延金山은 明治四十二年新安洞에金鑛脈을發見하고 採鑛을始作한結果 鑛夫의蝟集甚多하여 翌四十三年에는約一百八十戶의新部落을形成하엿다한다 其後經營者間에紛議를生하여 一時採鑛을中止하엿다가 大正二年日人荒井이가 此를買收하여 諸般設備를擴張하고 經營數年에至하엿지만 非情에依하여 大正十四年外지 約七年間休鑛의悲運에達하엿다가 同年十月에 故朴根湜氏等의 共同經營者가 此權利를 一金八萬圓에買收하고 採鑛及製鍊에巨額의投資로 … 馬力을使用하여 五百封度搗鑛杵四十本及三百封度의것三十本을具備하는同時에 青化製鍊場外지設하고 採鑛한結果 成績이大端이良好하다한다

故朴根湜氏는 十七歲時부터鑛山에投身하여 現今新延金山을經營하다가 昨年三月五日不幸이別世한後 長子龍鑋氏가引繼하여 今日에至하엿다한다 鑛主朴龍鑋氏는 二十七歲의青年으로서 松都高普를卒業하고 多年間東京에遊學하다가 健康損失로歸國하여 昭和三年부터 新義州榮町에 新延鐵工所를創設하고 鑛山機械를專門으로 製作하다가 昨年부터先親의遺業外지引受하여 現今은金山及鐵工所를兼營하는中이라는데 將來가大端이有望하다고한다

地勢及面積

登錄 第一三〇八號 面積 九七七三三〇坪 朔州九曲面을從貫한 三岐川의兩側山地에散在한鑛區는 一大金鑛地를形成하여 其中心點이則新延金山이다 上流十五里에朔州邑이잇고 下流三十里에九寧浦가잇서 物資를運搬한다 九寧浦朔州新義州間에는自動車便이有하여 交通甚히便利하다고한다

鑛床

主로正片麻岩及花崗岩으로 鑛脈은此中에胚胎하여 石英에硫化金屬을隨伴하엿다 鑛脈은往往巨晶花崗岩又는小花崗岩을貫通하고 又는此에化한다 此에反하야 珍岩又는斑岩脈으로 截斷하는것도不少하다

◇組織

大正十四年共同經營者等은 株式會社形成으로써 出資하야 大規模의採鑛製鍊의設備를하엿다

總資金 貳拾五萬圓

◇固定資產之部

項目	金額
鑛山權利買收	八萬圓
建物及原動機	七萬五千圓
發電機 二臺	貳萬五千圓
青化製鍊所	四萬五千圓
抗內排水機	五千圓
採鑛設備	壹萬圓
火藥庫	壹千五百圓
燃料及機械附品	八千圓

◇採鑛金高

昭和四年度

種別	數量/代金
一、青金	一三七、八〇八瓦
代金	一二二、二九三、四六圓
一、青化製鍊	一二〇、六八六瓦
代金	八七、五七六、五一圓
一、鑛石	二一三瓦
代金	一七、五七八、八七圓
一、䭾鑛	一六三瓦
代金	一五、九九九、二九圓

產金는朝鮮銀行에販賣한다는데 平均一匁三圓六十錢(青金)

自殺未遂

앨런·포―原作 夙河潤譯 城北學人畵

그는결코 약을먹으랴고는하지안엇다 약이라는것이 무척빗싸다는것만은 확실하엿스나 그것이과연 효험이잇는가엇더한가 알수가업는 까닭이다 병의증세는 왜조치못하엿다 나막신을맨들라면 몸을굽혀야하는것인데 그는아희머리통만하게큰뭉치갓흔것이 몸뒤편에잇는듯하야 곳몸을 펴지안흐면안될지경까지압혓다 그는 그런상태를 얼마동안은 참고잇섯스나 나종에는 이런날을내던지지안흘수업시되엇다

『나는 인제 일을할수가 업군』

원래부터 임이로쇠(老衰)한 그이엇슴으로 이제새삼스럽게 공상을그리는것이나 또 이러한경우에는 엇더한결과를보게되리라하는것을 생각해볼필요도업섯다 그가알든수만흔사람 그여러사람들이 이때까지경험해온것이 지금그에게도 닥쳐온것에불과하엿다

그는 역시나막신장수를하다가죽은『로메』영감과 가튼운명에 빠지게된것이다 『로메』영감은『류마디스』를알어서 오랫동안 몸을질질끌고다니엇다 그는 인제나막신을 만들수업섯다 그리고 크다란집항이를집고 거러다니엇다 사실인즉 그에게는송엽장(松葉杖)이 필요한것이엇지만 그는또아직 흔살도못된 커롬상한일급직공(日給職工)『랄랑드』와가튼신세엿다 『랄랑드』는 다리가약해저가고잇섯다 그러나 그는지지안흘뿐 감한사람이엇다 그는 어되까지 날품을팔고잇섯스나 일하는자리에 올나안저만하면 그에게는 발서 일을할긔력조차 업서지는것이엇다 『라피에』는 목수『듀공』에대해서는 별로잘알지못하엿다 『듀랑동』이 병석에서이러나왓슬때에는 너무창백한낫츨하고잇섯슴으로 보는사람마다 이러케들 이약이하엿다

―살어나지 못하겟군

무튼 노상 뼈만흘녓스니 될일이요

하여간 이사람들이 원리(一理)가잇섯다 한말햇이 임이일을하지못하게되는날에 마치 엇더케하엿스면조흘것인가 『로메』영감은 어느날아침 오전네시에 물에빠저죽엇다 그쌔에 『라피에』는 그것을보러갓섯는데 죽은사람은 마치작대기 처럼 쌧쌧하게되어잇섯다 『랄랑드』는 어느날 매우칭이낫섯다 그래도 그에게는 집으로도라가서 팡으로올나갈긔력이 잇섯다 그리하야 바라안드시 목을매다라가리엇다 『듀랑동』은 몸이멋생 … 를사다가 머리를대고 한밤노아 바리엇다

그야 그들의 후사를 내지안코라도 양로원(養老院)으로 청원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일이엇다 그러나 그러케되면 … 생활상태로 드러가지안흐면 아니된다 더구나 륙십사세나되어서 아직까지 어느일정한 생활방침을 세우고잇든자에게 급작히 습관을고친다는것은 사실어려운일이다

여하간 『라피에』게는 새삼스럽게 그런긔분도 들지아니하엿다 그는전부터 구든결심을 가지고잇섯든것이다 가령 그런결심을 가지고잇지는안트라도 결국그는 다음과가튼 생각을 하지안흘수업섯든것이다

『근본 나는 다른사람보다는 령리한편도아니오 또아모리해도 그들보다 조흔방법을생각해낼수는 업는일이다 발서세사람째나 겪엇지만 그들이그러케해서 죽은것도 사실을말하면 달니도리가 업섯든연고이다』

그날밤도 다른날과 다르지안흔밤이엇다 오히려 보통때보다는 따뜻한밤이오 하날에는별이 반작이고잇섯다 무슨일이 잇슬뜻한 징조가보히엇다 비가올뜻하엿다 마침 오늘가튼밤을 그는잘어더맛낫든것이다

【訂正】 昨日揭載의分第四行『떠올르다』는『떠올은다』의七行『作色에』는『作品에』의十五行『深作이』는『諸作이』의十七行『新興戀所』는『新興藝術』의下段第九行『경우이잇든』은『경우이엇든』의十行『아모도다』는『아모도』의十五行『잡기본』은『잡거본』의十六行『럴뤌요』는『그럴필요』의十九行『하나입에』는『하는일에』의二十九行『올낫든생각』은『올낫든생각』의二十一行『예사문지』는『예사롭지』의誤植이잇기에訂正합니다